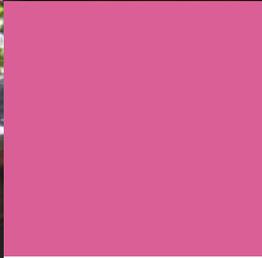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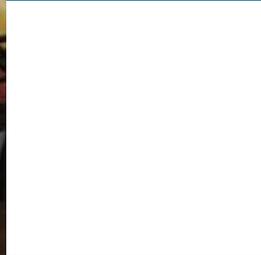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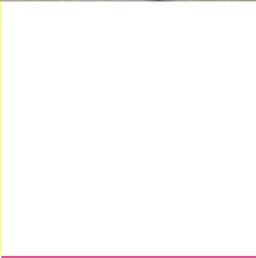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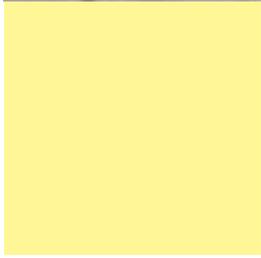


# Na no Ra

# 나노라

일본문화의시작, 역사가 보이는 가쓰라기시



P.2 : 스모 발상지 가쓰라기시

P.3 : 시대를 뛰어넘는 길 '다케노우치 가도', 주조모치

P.4-5 : 다이마데라 절 연공양회식 (성중내영 연공양회식)

P.6-7 : 하이킹  
With 나노라 니쵸잔 산 영지 하이킹

# 제 6 호

# 스모 발상지 가쓰라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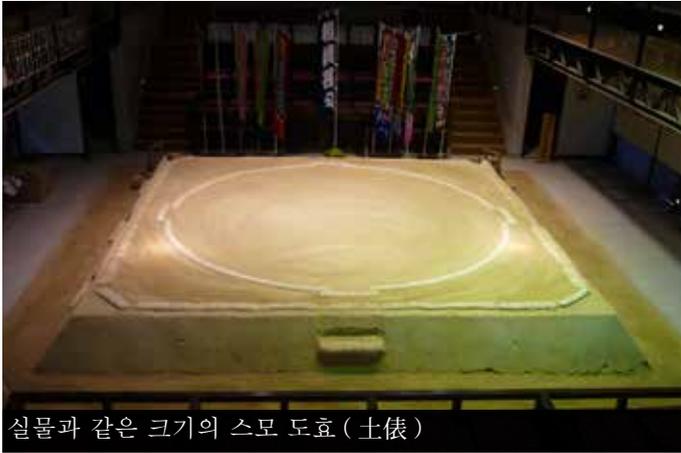


스모가 일본에서 시작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스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스모의 발상지는 가쓰라기시 다이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모에 대한 자료가 있는 가쓰라기시 스모관 '게하야자' 는 1990 년에 개관했습니다. 이 곳은 가쓰라기 시내에 사는 사람은 물론 멀리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 스모의 역사를 말해주는 스모관

1 층에는 실물과 같은 크기의 도효 (土俵, 스모를 겨루는 곳) 가 있으며, 실제로 도효 위에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스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일본에서도 흔치 않은데 특히 도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2 층은 스모 역사의 설명과 여러 전 시물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스모관 담당직원 고이케 님과 게하야 스모진쿠회 오시무라 회장님께 스모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물과 같은 크기의 스모 도효 (土俵)

처음에 들은 이야기는 가쓰라기시와 스모의 관계에 대해서였습니다. 야마토 국의 다이마 지역에 있던 힘장사 다이마 게하야 (當麻蹶速) 는 힘겨루기 할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이닌 천황이 이즈모 국에서 불러들인 장사가 바로 노미노 스쿠네 (野見宿禰) 였습니다. 스이닌 7 년 7 월 7 일에 열린 다이마 게하야와 노미노 스쿠네의 대결이 스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이마 게하야는 이 시합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역사가 흘러 오락관전을 위한 스모가 일반화 된 것은 에도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현재는 88 가지의 스모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게하야자에는 다이마 게하야와 노미노 스쿠네 이야기부터 현재의 스모선수까지, 스모 역사에 관한 그림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게쇼마와시 (化粧廻し, 스모선수가 도효에서 의식을 지낼 때 두르는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드림) 와 반즈케호 (番付表, 스모선수의 순위를 적어놓은 판) 등 스모 도구와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스모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스모로 목숨을 잃은 다이마 게하야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적에 스모와 닮은 서구의 스포츠, 레슬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모의 역사와 기술에 대해 더더욱 흥미를 갖고 있었기에 매우 즐거웠습니다.



다이마 게하야와 노미노 스쿠네의 대결

## 스모체험

스모관에는 정기적으로 진쿠 (스모에 관한 민요) 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스모체험입니다! 사전에 예약하면 누구나 체험 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18 미터나 되는 마와시 (廻し, 스모할 때 착용하는 살바) 를 착용하거나 스모선수 의상을 입고 도효에 올라 스모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실제로 스모 경기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와시와 스모선수 의상 양쪽다 체험해봤습니다. 스모선수 의상을 입었을 때 모두가 재밌어 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와시를 뿔 용기가 있는 분은 꼭 도전해 보세요. 스모선수가 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스모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오니 스모관을 방문하실 때는 꼭 스모체험 해보세요.



마와시를 착용한 스모체험



스모선수 의상입고 스모체험

저도 잠깐이지만 스모선수가 되어 실제로 도효에 올라 소금을 뿌려 정화시키는 의식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엔 소금을 뿌리는 것이 무척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힘을 주니 소금이 힘차게 뿌려졌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데 이 정도로 힘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코 (四股; 스모에서 허벅다리를 높이 들고 힘있게 땅을 밟는 동작) 를 밟고 모의 시합을 했습니다. 하리테 (張り手, 손바닥으로 얼굴이나 목을 치는 스모기술) 와 같이 스모에서 봤음직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효는 단단한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시합하는 스모선수들은 부상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할 땐 조심해서 체험하세요.

일본의 국기인 스모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가쓰라기시 스모관 '게하야자' 에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마두 무르두



반즈케판

자세한 정보는 이 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쓰라기시 스모관 '게하야자' 안내 페이지



<http://www.city.katsuragi.nara.jp/index.cfm/14,0,41.html>

시대를 초월하는 길

# 竹内街道 다케노우치 가도

## • 가장 오래된 관도(官道)

길은 사람과 물건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길이 없으면 물건이 산이나 강을 건널수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없습니다. 길이 있기에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나라와도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케노우치 가도는 오사카의 사카이 시와 가쓰라기 시를 잇는 26km의 길입니다. 약 1400년전, 난바와 아스카를 잇기 위해 부설되었다는 관도와 길이 겹쳐 일본내에서 가장 오래된 관도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한 때는 견수사를 떠나보낸 길이기도 하며, 아스카시대에는 사신들이 이 곳을 지나 아스카쿄에 갔다고도 합니다. 이 길은 마치 고대 일본의 해외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 • 시바 료타로의 추억의 길

일본의 유명한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 시바 료타로는 어린 시절 이곳 가쓰라기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시바 료타로는 기행문 '가도를 가다(街道をゆく)'에서 다케노우치 가도를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해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곳에서의 추억도 쓰여져 있습니다. 시바 료타로가 젊었을 때, 언덕위에서 자전거를 탄, 빨간 스웨터를 입은 연상의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던 시바 료타로는 그 여인이 자신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해 뒤돌아 보지만, 그녀는 이미 언덕밑의 집사이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시바 료타로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듯 합니다.

길은 단순히 사람과 물건이 지나가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추억이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 • 다케노우치 가도의 현재

긴테쓰 미나미오사카 선 '이와키 역'의 개찰구에서 나와 왼쪽을 보면 '竹内街道(다케노우치 가도)'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조용한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서쪽을 향해 걸으면 길고 얇은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다케노우치 가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모습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길이었으며 에도시대에는 이세신궁에 가는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에도시대의 숙박시설부터 현대에 이르는 여러 시대의 집들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니조잔 산을 보며 걷는 것도 이 길을 즐기는 한 방법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주변의 풍경이 바뀌어도 길은 남아있습니다. 한 때는 외교의 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추억의 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근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길이 되어 우리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관도 '다케노우치 가도'를 걸으며 일본의 옛날과 지금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호선

## 다케노우치 가도 지도



-참고문헌 시바 료타로 '가도를 가다(街道をゆく 1) 아사히 문고

# 명과 주조모치

가쓰라기에는 옛날부터 팔이 들어있는 쭈떡이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나노라 이번호에서는 다이마테라 역 앞에서 팔이 들어있는 쭈떡을 맛 볼 수 있는 '주조도'를 방문했습니다.

주조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조모치'는 말랑말랑한 쭈떡위에 모란꽃잎 같은 팔양금을 얹은 떡입니다. 쭈떡 특유의 향과 적당한 단맛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제공되는 이쭈시게 만으로 잘리는 부드럽고 말랑한 떡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정도입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카운터 넘어 주조모치를 만들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먹고 갈 수 있게 정원과 실내에는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에 지친 다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주조모치와 센차 세트'는 가쓰라기에서 탄 쭈떡과 나라현산 찻쌀을 사용한 주조모치 2개와 센차(煎茶)를 곁들인 세트입니다. 센차는 나라현의 차 '야마토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현의 자연을 맛볼 수 있는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마테라 역 바로 앞에 있는 주조도에 들려 일본의 티타임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영업시간

- 9:00 - 18:00
- 준비된 수량이 매진 될 경우 영업종료

### 휴업기간

- 7월전체
- 8월 중순부터 8월 31일
- 12월 31일부터 1월 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오



<http://www.chujodo.com/>  
(일본어)



2

의식을 행하는 날 16 시 즈음. 조용해진 절 안에서 갑자기 방울과 피리, 나각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당까지 이어져 있는 다리로 참배자들이 눈을 돌리자 샤바도에서 본당으로 건너가는 어린아이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마테라의 정토종의 스님이 나오면서 장엄한 분위기가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영공양회식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가악의 음색이 스님의 독경으로 바뀌면서, 이윽고 가면을 쓴 보살님이 본당에서 샤바도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의상을 몸에 걸치고 있어 뭔가 불가사의하면서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색의 보살 가면을 쓴 이십오보살이 건너기 시작하니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면서 천천히 샤바도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꿈과 같이 내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1

**연공양회식**  
(聖衆來迎練供養會式)

긴테쓰 미나미오사카 선을 타고 다이마데라 역에서 내리니 5 월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이마데라 (當麻寺) 절 안으로 들어서면 본당과 절 안의 남쪽에 있는 샤바도 (娑婆堂) 사이에 100 미터 이상 되보이는 나무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의식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을 의심할 정도의 장관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천 년이상 계속되었다고 전해지는 불교의 신앙을 화려하게 재현한 연공양회식 (정식명칭은 성중내영 연공양회식 - 聖衆來迎練供養會式 -) 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공양회식은 본당을 극락, 샤바도를 인간세상으로 빗대어 이십오보살이 내영 (來迎) 하는 것을 구체화한 법요입니다.



행렬이 본당으로 돌아오는 모습



길이가 100 미터가 넘는 다리 '라이고하시 (來迎橋)'

3

마지막에 오는 관음보살이 연대 (蓮台) 를 들고 흔들며 천천히 샤바도로 향합니다. 샤바도에서 부처의 모습이 된 주조 공주의 상을 받은 관음보살님 뒤를 따라 이십오보살은 본당으로 돌아가면서 해질녘의 절 안에 독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식이 끝납니다.

다이마데라 절은 612년 창건된 오래된 절입니다. 종파는 본래 남도육종의 하나인 삼론종을 섬겼지만 현재는 진언종과 정토종의 이중파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한 연공양회식은 가마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문헌에 따르면 천 년 이상 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마데라 절의 연공양회식은 매우 역사가 깊고 전국적으로도 널리 퍼진 연공양회식이라고 하는 법요의 발상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연공양회식은 매년 5월 14일 주조 공주의 기일에 행해집니다. (16시부터, 입장 무료). 주조 공주는 후지와라노 도요나리의 딸로 16살에 다이마데라 절에 들어가 아미타여래의 극락정토를 표현한 ‘다이마만다라’는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절의 본존으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 공주는 29세가 되던 해에 이십오보살의 내영을 받고 극락왕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마데라 절의 연공양회식은 오래된 정토교의 신앙을 널리 알리고자 내영의 모습을 보살가면과 의상 등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외국인(특히 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의 신앙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재현한 매우 드문 의식으로 불교의 본질을 가까이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며 매우 의미깊은 의식이었습니다.



지장보살

6

그리고 다이마데라 절에는 연공양회식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잠깐 언급한 다이마만다라와 동서양쪽으로 세워진 쌍탑, 봄의 벚꽃과 4월 말에 만개하는 모란꽃, 여름의 연꽃과 가을의 단풍 등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히튼 토마스

자세한 정보는 이 곳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마데라 절 (일본어)

<http://taimadera-gonenin.or.jp>

5

연공양회식은 매년 참배객 수가 많고 해외 언론매체에서 취재 올 정도입니다만 의식은 지역의 보사쓰코(菩薩講)라고 불리는 분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공양회식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지역 출신으로 다이마데라 절의 고넨인(護念院)의 주지스님에 의하면 연공양회식은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 세지보살, 보현보살 이외의 보살역할은 제비뽑기로 정해지며, 의식 당일까지 몇 번의 회합을 거쳐 준비한다고 합니다. 주지스님께서서는 연공양회식은 이 곳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신앙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곳분들의 깊은 신앙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곳 다이마데라 절에서 연공양회식을 견학하고 눈과 귀로 내영의 모습을 한 번 느껴보세요.



보살 가면

하이킹  
With  
나노라

메다케 오다케

유센지 절에서 메다케 정상까지 약 35분

유센지 절 (역에서 도보 약 40분)

Photo Spot!

다이마야마구치진자 신사 (역에서 도보 약 25분)

셋코지 절 (역에서 도보 약 15분)

휴게소 다이마노이에

출발!

긴테쓰 니조진자구치 역

## 니조잔 산 영지 하이킹

니조잔 산에서 본 나라분지

오다케와 메다케가 이어져 있는 두 개의 봉우리로 구성된 니조잔 산은 야마토 분지의 서남부에 있는 곤고, 가스라기 산계의 최북단에 있으며 독자적인 아름다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니조잔 산 주변에는 산속에 진좌하고 있는 신사, 다이마야마구치 진자 신사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을 보관하고 있는 셋코지 절이 있습니다. 두 곳다 역사가 깊고 신불의 힘이 영험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곳 영지와 함께 니조잔 산을 하이킹 합니다

## 다이마야마구치진자 신사

니조잔의 산기슭에 들어서면 만물이 조용해집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이 살고 있는 속세를 나누는 경계인 도리이가 입구에 서있습니다. 도리이를 지나면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사의 혼텐(本殿)에서 이 신사의 네기(禰宜; 일본 신직 명칭)이신 다카쓰 님 부부와 그 할머니님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도리이가 향해있는 방향이 신사의 참배길이 아니라 니조잔 산 방향인 것일까요? 다카쓰 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역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쓰 황자가 니조잔 산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오쓰황자를 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쓰키 히로유키가 쓴 '하쿠지준레이(百寺巡礼)'에서는 '야마토 사람들은 이쪽을 현세, 서쪽의 가와치 쪽이 정토'라고 쓰여 있습니다. 니조잔 산은 생과 사를 나누는 결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사의 네기이신 다카쓰 님과 도리이

### 신

하이텐(拜殿; 배례하기 위한 곳)에 모시고 있는 신은 오오야마즈미노미코토와 니니키노미코토,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 부부입니다. 그 중 가장 고귀한 분은 산의 영령을 지배하고 있는 오른쪽의 오오야마즈미노미코토로 처음으로 이 신사에 모셔진 신이라고 합니다.

'고지키(古事記)'에 나오는 '하룻밤만에 임신해 남편의 니니키노미코토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산실에 불을 놓고 그 안에서 세명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니니키노미코토와 고노하나노사쿠야히메 부부도 어느샌가 이 곳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인연운과 부부원만, 육아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구름위의 신들이 드라마 처럼 갈등을 겪는 등, 인간적이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친밀감이 듭니다.

그럼 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고 많은 외국분들은 생각할 것

입니다. 사실 신사 안에서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도는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 바위, 강 등의 대자연이아말로 신의 모습이며 신사는 야오요로즈(八百万)라고도 불리우는 신계 경외의 마음이 솟아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다이마야마구치진자 신사는 엄숙하게 서있는 오래된 삼나무와 깊은 숲 등 정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텐 앞에서 손뼉을 치니 맑은 소리가 신사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손뼉을 치는 것은 액막이와 신을 부르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 ■마쓰리(축제)

다카쓰 님의 소개에 따르면 901년에는 엔기시키킨묘초(延喜式神名帳, 관사(官社)로 지정되어 있던 전국의 신사일람)에 이 곳이 '시키나이다이샤(式内大社)'의 격을 갖고 있으며 조정으로부터 봉납을 받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의 축제가 있으며 4월 23일의 '오타우에마쓰리(御田植祭)'는 에도시대부터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축사를 올린 후 옛 농경의 모습을 표현한 소작을 시작합니다. 소의 망토를 두르고 씨를 심거나, 신에게 바치는 공물인 떡을 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을 먹음으로써 신의 기운을 받는다는 신도의 신인공식 풍습입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하이킹한 후 이 신사에 모여 축제(마쓰리)를 즐긴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일본인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니조잔 산의 하이킹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마야마구치진자 신사에 들려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며 몸과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타우에마쓰리'의 모습



다이마야마구치  
진자 신사

<http://www.taimayamaguchi-jinja.org/>

자세한 정보는 이 곳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신기한 매력이 가득한 니조산 산기슭의 셋코지 절

## ■ 주조 공주와의 인연

오쓰 황자 외에 니조산에 모셔져 있는 인물로 주조 공주가 있습니다. 쇼무 천황시대에 다이마데라 절로 출가한 주조 공주는 ‘연(蓮)의 줄기에서 실을 자아내 셋코지의 영험한 우물물로 정화하라’라는 부처님의 시현에 따라 뽑은 실을 우물 옆에 있는 벚꽃나무에 걸어놨더니 5색의 실로 물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우물은 셋코지에 있습니다. 주조 공주가 이 실을 다이마데라 절에 가져가 하룻밤만에 짠 것이 다이마만다라입니다. 셋코지 절의 종파 정도종은 호넨쇼닌(法然上人)이 중국의 선도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가마쿠라 시대에 시작된 일본의 불교종파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다이마만다라이지만 극락정토의 가르침이 장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 작가 오리쿠치 시노부의 소설 '사자의 서(死者の書)' 안에서의 주조 공주의 이야기에서는 석양이 지는 곳이 정도라는 고대 일본인의 관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주조 공주는 니조산 산의 석양을 보며 부처의 환상을 느낀 듯 갑자기 모습을 감춰 니조산 산으로 향한다고 소설에 쓰여 있습니다. 고대 일본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조히메와 우물

##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

셋코지 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이 있습니다. 석불의 탄생에 대해 ‘다이마만다라엔기에마키’에서는 밤이되니 신비한 빛이 셋코지 절이 있는 곳에서 뿜어져나와 덴치 천황(668년 즉위)이 그곳을 파보니 불상의 형태를 한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미륵여래를 조각하고 불당을 세워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스님에 의하면 고고학의 관점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백강 전투(663년)에서 패한 백제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니조산 산의 돌을 사용하여 조각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불은 언젠가부터 사람들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91년 4월, 이곳의 불당을 다시 짓기 위해 발굴조사를 한 결과 불상의 머리와 몸체가 출토되었습니다. 하나의 돌을 조각한 석불을 지금까지 예가 없었던 일이기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로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몇번의 화마를 입고 다시 조각된 석불 얼굴의 어딘가 친밀감이 드는 모습에 주지스님은 이 석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13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들과 얼굴을 마주하게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을 꼭 보러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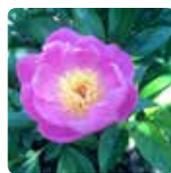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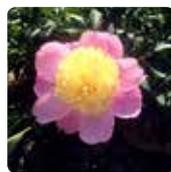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

## ■ 꽃

전설과 석불 이외에 여러분께 소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꽃입니다. 셋코지는 보탄데라(모란 절)로 불리울 정도로 2000주 300 종류의 모란(봄 모란: 4월 말, 겨울 모란: 12월 초중순)과 1000주 100 종류의 아메리카 작약(5월 초~중순)이 심어져 있습니다. 유학승으로 당을 건넌 고보다이시(弘法大師)가 중국에서 모란을 한 방약으로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고대 절에서는 그 때부터 야쿠슈보탄(藥種ボタン약재모란)을 심게 되었습니다. 절 안의 모란의 가지치기와 옮겨 심기, 땅 다지기, 비료는 주지스님 혼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모란을 심는 비결을 여쭙봤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열심히 키워도 차츰 시들어가는 것이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내년에 또 다른 종류를 심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불단행(不斷行)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니조산 산 하이킹을 하기 전에 신비한 면이 가득한 셋코지 절을 꼭 한번 찾아주세요. 전설의 우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 아름다운 꽃을 둘러보세요.

장민



5월 중순에 취재했을 땐 작약이 많이 피어있었습니다.

**셋코지 절**  
<http://sekkouji.or.jp/>

자세한 정보는 이 곳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나노라 제 6 호 취재지 : 가쓰라기 시

이번 나노라에서는 불교의 신앙을 선명하게 재현한 의식을 보고, 스모의 발상지를 기념하는 스모관에서 스모체험을 체험하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관도(官道)와 니조잔 산 부근의 절과 신사를 찾아가 일본의 역사를 몸소 느껴볼 수 있는 가쓰라기 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매력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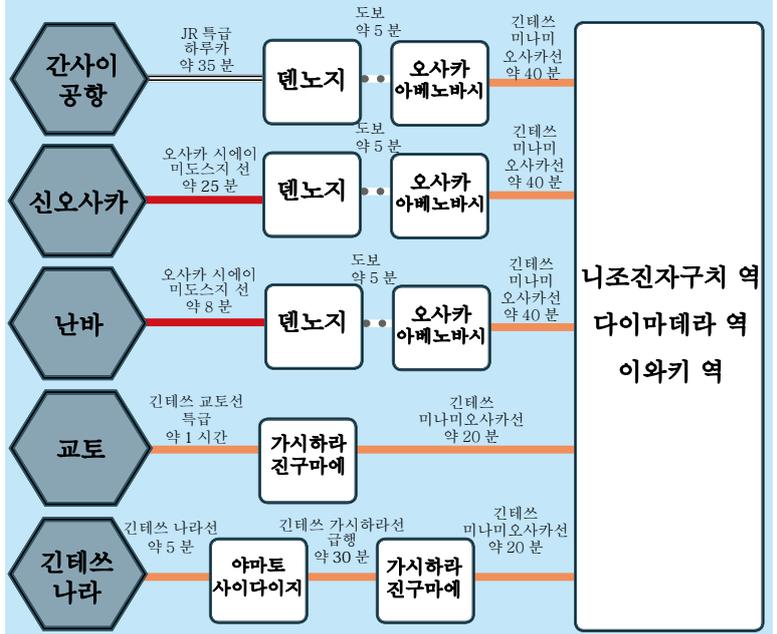
## 이번에 취재한 장소



- P.2 스모의 발상지 가쓰라기시 : ①스모관 '게하야자'
- P.3 다케노우치 가도, 주조모치 : ②다케노우치 가도 ③주조도
- P.4-5 다이마테라 절, 연공양희식 : ④다이마테라 절
- P.6-7 니조잔 산 영지하이킹 : ⑤셋코지 절 ⑥다이마야마구치진자 신사 ⑦유센지 절 ⑧오다케 ⑨메다케

## 오시는 길

### 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

- 미나미한나 도로, 가쓰라기 인터체인지 하차, 약 5 분 소요
- 니시메이한 자동차도로, 가시바 인터체인지 하차, 국도 168 호선 경유, 약 20 분 소요
- 니시메이한 자동차도로, 가시와라 인터체인지 하차, 국도 165 호선 경유, 약 20 분 소요

# 나노라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해외에서 온 방문객과 나라현 현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라현에서 본 매력적인 곳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현 국제교류원 일동



## 편집후기

이번 취재에 협력해주신 스모관 '게하야자', 셋코지 절, 다이마테라 절, 다이마야마구치진자 신사, 주조도를 비롯한 가쓰라기 시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16년 8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FAX : 0742-22-1260